장상훈(부림사건[1] 피해자) 1차 구술

1. 구술자: 장상훈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2년 8월 23일
5. 구술장소: 경기도 부천 소사구 베스티안병원 별관
6. 구술분량: 04분09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87년 이석규 열사 사망사건과 장례대책위원회 활동

구술자 : 경찰이 쏜 최루탄, 그걸 최루탄 원래 발사를 하늘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가슴을 보고 쏴가지고 젊은 이석규[2]가 죽음을 맞이했지요. 제가 그때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오후 시간에 대우조선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옥포에서 큰 시위가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한 노동자가 최루탄 맞고 쓰러졌는데, 대우병원에 실려 갔는데 죽은 것 같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바로 약국 문 닫고 카메라 하나 들고 대우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그 사건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경찰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달랑 그 사람 싣고 그냥 병원에 시신만 실어놓고 냉동고에 넣어놓고 가버렸더라고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우병원에 시체 안치실에 있는 분한테 제가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신을 봤어요. 가슴에 정말 최루탄 파편을 한 대여섯 개 맞은 것 같더라고요. 까만 점이 타다닥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간

---

1)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정권이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당시 반독재투쟁의 중심이었던 학생들을 용공혐의로 대거 구속함으로써 이들을 대중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사건으로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다.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매도되어 총 22명이 구속되었고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다. 이들의 변호인단으로 노무현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197쪽 참고

2)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 사건을 말한다. 1987년 대우조선은 세계 조선업계 불황과 경영부실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대량해고를 단행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8월 8일 노조를 설립했으나 어용시비를 겪다가 11일 새 집행부(노조위원장 양동생)가 결성됐다. 이후 노사 간 협상이 추진됐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21일부터 무기 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노동자들과 주민 2천여 명이 관리직 임시사무소가 있던 옥포관광호텔로 몰려가던 중 옥포사거리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며 연좌농성이 벌어졌고, 22일 사측으로부터 노조의 최종안마저 거부당하자 시위가 격렬해졌다. 그 시위과정에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21) 씨가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고, 30여 명의 노동자와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카메라로 시신을 촬영하고 그러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노동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사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부산에 고호석[3]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다들 와서 좀 도와 달라 그러면서 당시 지역에 있던 몇 분들하고 대책위원회 같은 것도 꾸리면서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날 노 변호사님도 오시고 이상수[4] 변호사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장례위원회가 개편돼나갔지요.[5]

근데 이제 협상을 하면 저는, 밖에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협상을 하는데 변호사님이 한 번씩 나와요. 화를 팍 내시면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어떨 때는 '회사 측이 양보를 잘 안 한다.' 그때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님 입장은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이걸, 그 장례식만 잘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마무리 지으면서 당시 임금협상 이런 문제들이 걸려있었는데 이런 문제들도 다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원활하게 안 돌아가니까 이제 한 번씩 성질을 못 이기셔가지고 [협상장을] 튀어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분위기가 어땠나하면 [노무현]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경청해줬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하는 그 앞에 변호사님이 노동법 강연[6]하러 온 게 아주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노동자들도 인권변호사 노무현에 대한 인식을 그때 가진 거 같애.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장례대책위원회 기념사 같은 것도 노무현 변호사가 하게 된 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노동자들이 노무현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안 가졌어요.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

3) 구술자의 부산대학 선배로 함께 부림사건에 연루, 1981년 9월에 1차 구속됐다. 노무현 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맡았다. 이석규 열사 사건이 벌어진 1987년에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차장,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사무국장 겸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4)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민권위원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3대 국회에서는 같은 초선의원으로 노무현, 이해찬과 함께 '노동위 3총사'로 활약했다.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때는 새천년민주당 중앙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았으며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다.

5) 노무현 변호사는 1987년 8월 23일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사망에 대해 노조로부터 사체 부검 입회와 진상조사 요청을 받고 거제로 갔다. 거제 옥포 대우병원에 도착해 노조 집행부와 재야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사건진상규명위원회) 양권식·김영식 신부 등을 만났다. 오후 5시경부터 1시간30분 동안 병원 앞마당에서 열린 '사망진상보고대회'(제1차 국민대회)에 참석해 "이 사망은 공권력이 국민을 적으로 보는 전투적 행위에서 빚어진 살육인 동시에 그동안 노사 분쟁에서 사용자 측의 서류탈취 등 불법이나 구사대의 폭력에 대하여는 수수방관 하던 공권력이 노동자의 폭력에 대하여는 구속으로 나서는 편파적 개입의 연장선상에서 저질러진 노동자에 대한 적대행위이므로 우리 전 국민과 노동자가 함께 이 같은 만행을 규탄하여야 하고, 그것만이 이 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6) 1986년 노무현 변호사의 거제 장승포성당 강연을 말한다. 노무현사료관에 공개된 구술자의 또 다른 구술 '노무현 변호사의 거제 장승포성당 노동법 강연'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들더라고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58. 거제 출생

1977.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입학

1981.10 부림사건으로 구속

1982.02 집행유예로 출소

1983. 거제 장승포에 우당약국 개업

1989. 거제신문 창간

1995. 거제 시의원 당선

2002. 새천년민주당 경남 거제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열린우리당, 거제)

1981년 부림사건 2차 구속자가 되면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1982년 2월 부림사건 구속자 23명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1983년 고향 거제 장승포에 '우당약국'을 차렸다. 1986년 노무현 변호사의 거제 장승포성당 강연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노동자들과 노동법 공부 모임을 갖기 시작한다. 1987년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노무현과 같이 현장을 지켰다. 1995년 거제 시의원에 당선됐고, 2002년 대선 때는 거제시 선대위원장을 맡아 노무현을 도왔다.